

현대 조명 연구

1 E O 스페셜디자인전공 62009530 최혜진



현대 건축 외피의 매체에 순화에 관한 연구



디지털 환경에서 발달된 기술의 발전이 예술작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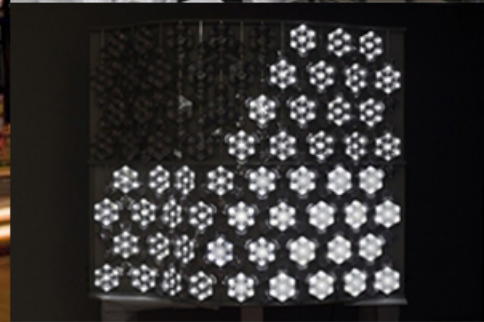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가 발전하고 삶의 질에 대한 요구와 공동생활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디자인의 예술적 창조적 임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건축의 외관, 특히 외피디자인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로 부터의 중순관계에서 벗어났다. 자량위선 만큼 그 표현도 대체로 개성적이고 있는데 그 결과 건물 외관과 외피는 구조물 비인된 별도의 디자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회과정은 기존 건축물의 외관과 외피는 최근 또 다른 하나의 변화로 보이고 있다. I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자량위선 디자인과 표현대상을 넓어서 매체예술화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축물 외피의 기능이 새로운 가능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은 보여주며, 나아가 건축물 외피의 존재와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동기를 제공한다.



건축 구조로부터 외피의 도킹

이전 건축의 외관은 건물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건축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건축 외관은 구조에서 점점 도킹되어 되고 있다. 건축 외피의 매체 예술화는 구조 매체 역할은 한다. 매체 예술 표현은 인에 건축 외피는 단순한 건축물의 외관이 아닌 도킹적인 지체가 될 수 있다. 건물 외피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훨씬 증대되어 자유로운 디자인과 표현은 건축물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화려한 건물 외관으로 사랑등을 끌어들이는 소필모, 일루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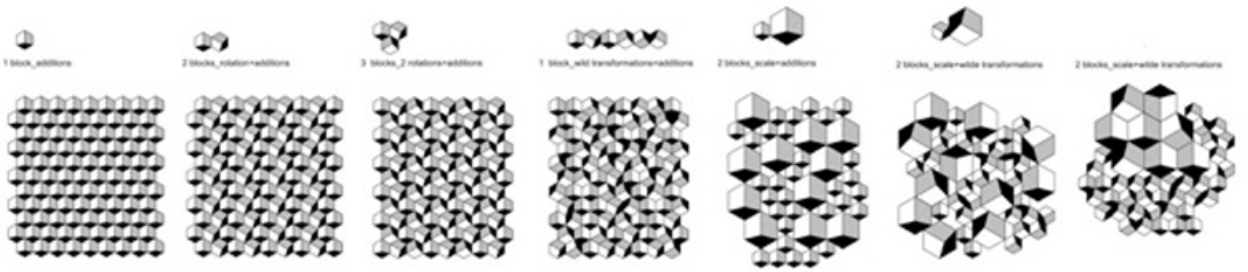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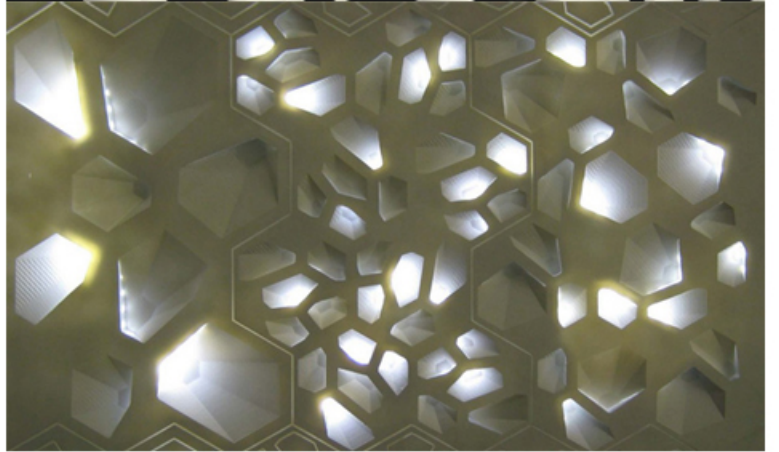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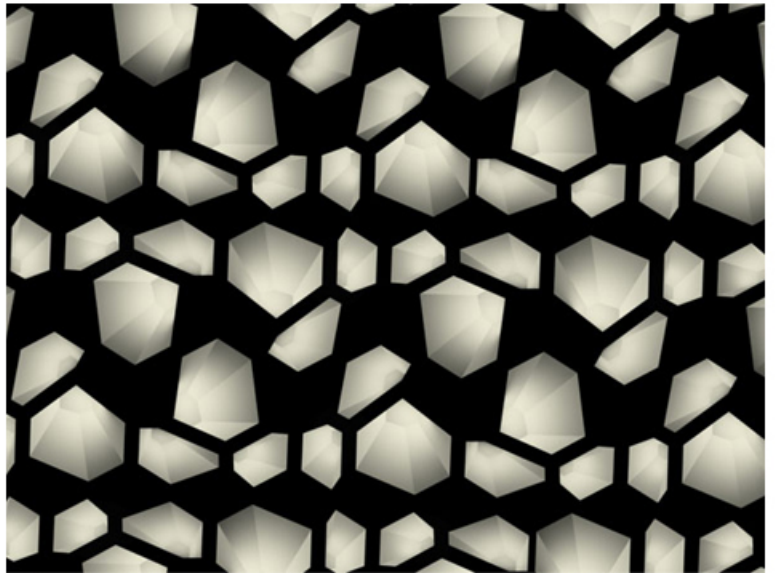
독일의 건축 스튜디오 테일리츠 유나이티드는 저층도 계층에서 혁신적인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에이 앨브와 더불어 그들이 실각로써 설치한 또 하나의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는 엔터테인먼트 소필모 일루마이다.

에이 앨브와는 달리 일루마의 경우는 프라스의 커브로써인 일괄 행렬 단 크리스탈 매시 기법을 사용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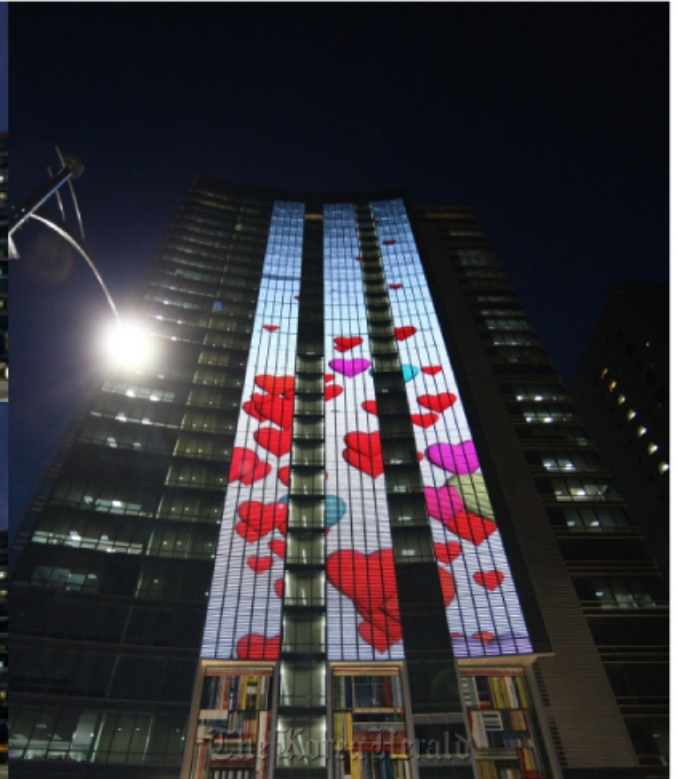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컴퓨터 렌더링 파사드에 투입되는 이미지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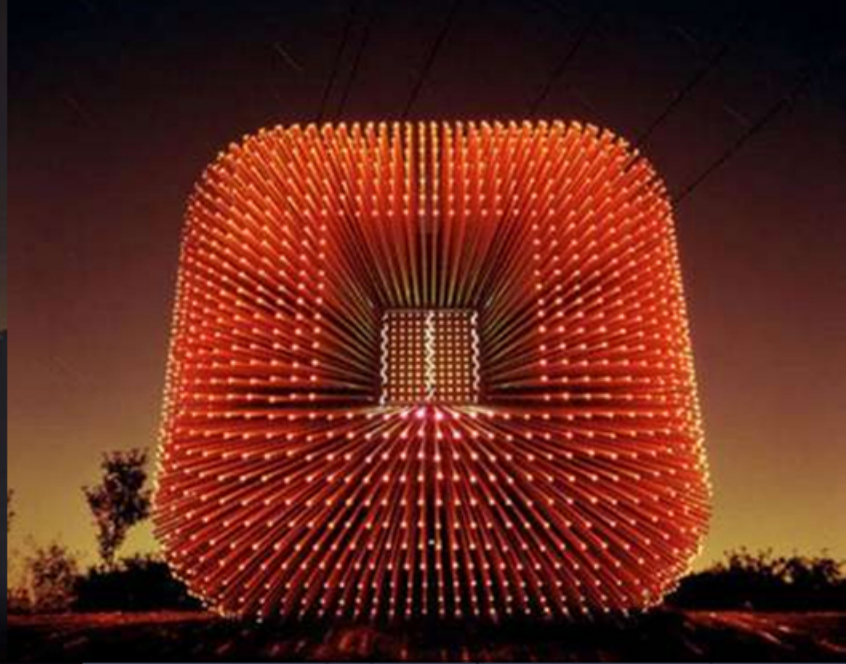




건축물의 광섬유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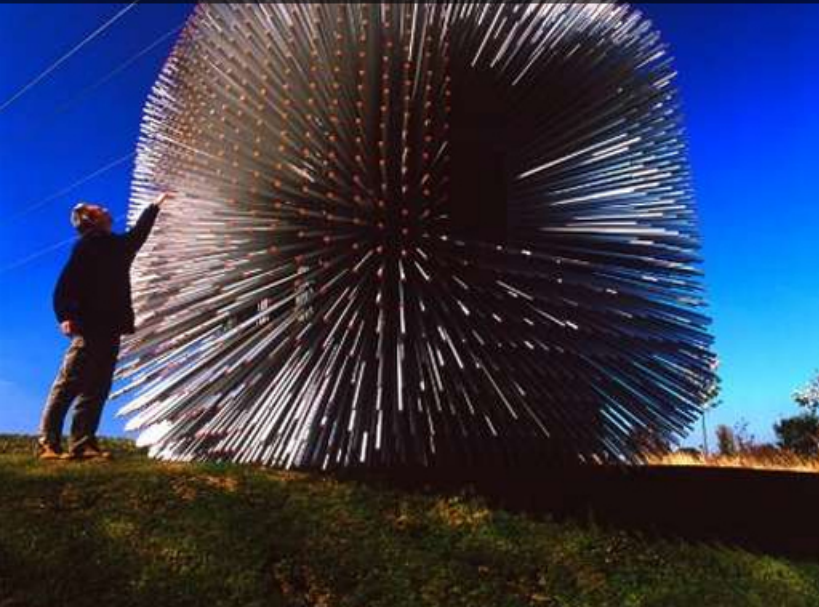
대체예술은 건축에 표정을 주어 건축물의 광섬유를 부여한다. 쉽게 변화할 수 없는 고정된 색과 형태를 변화시켜 건축에 표정을 주는 것이다. 같은 공간이라도 조명에 따라 분위기가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인터넷과 센서를 이용하면 인간의 감정과 상호 연결된 표현 역시 가능해진다. 광섬유 부여된 건축물은 인간과 좀 더 교감하는 유계체로 발전하도록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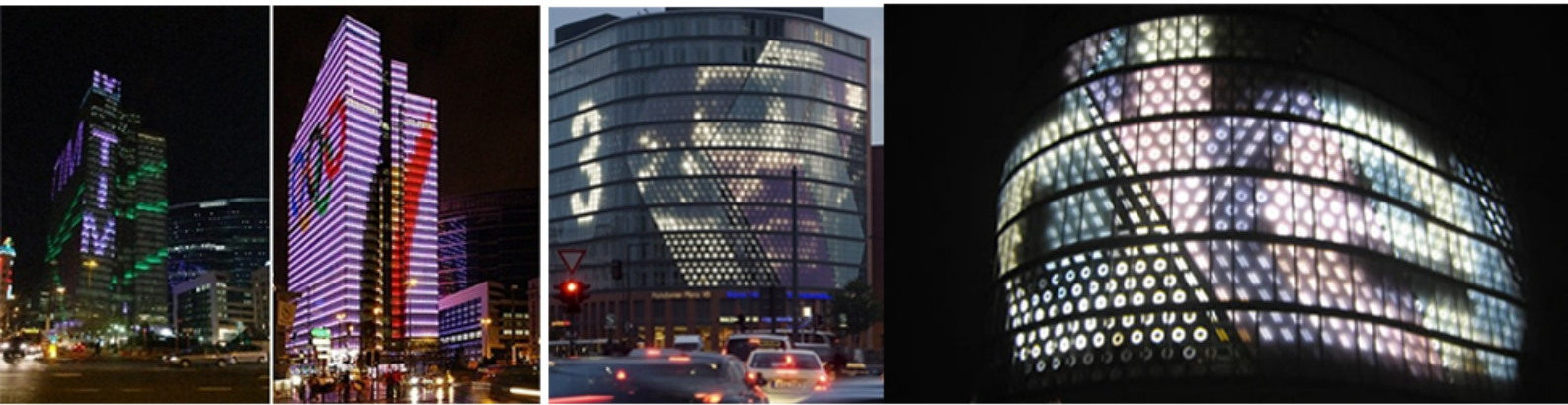




빛을 내보내는 거대한 전망대, 시베리

시베리아는 영국 런던의 에더원 스테디오키 에식스 지역의 네서널 팅크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조명 설치물이다. 시베리아는 스코틀랜드로 가서 주변 풍경은 감상할 수 있는 작은 전망대라는 의미. 에더원 스테디오키 1000개의 작은 구멍이 뚫린 50000개 이상의 알루미늄 봉을 조립해 완전히 새로운 기념의 전망대를 만들었다. 그것의 알루미늄 봉 끝 부분은 오렌지색의 뛰어난 야간 소재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봉의 안쪽 끝 부분은 전모 흡수봉을 가지고 있다.





건축물에 이야기를 부여

대체예술은 건축에 변화 가능하면서도 지속적인 스토리를 부여한다. 이전의 건축은 인간과의 직접 소통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대체예술의 도움을 받아 살아 움직이는 입체, 문자 등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거대한 관성유 조형물, 삼아이고재박물관 2D1D 입구관

삼아이고재박물관 2D1D에서 온 화제를 모은 입구관은 런던의 에디윌 스테디오가 디자인한 건물이다.

서양 실감이란 이름이 붙은 이 전시관은 시뮬레이션에서 선보인 내부의 빛을 외부로 전달해주는 구조물이라는 아이디어를 더욱 확장, 발전시킨 프로젝트이다.

서양 실감은 빛을 잘 전달하는 6만 개의 관성유 필라멘트 튜브를 모조리 칠해 구조물 전체를 이뻐서 있다. 모든 튜브는 건물 접합부와 연결되어 있다.

이 튜브는 낮에는 열받은 튜브로 내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밤에는 튜브로 내부에 설치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바깥으로 튜브를 빛나는 관성유 조형물처럼 보이게 한다.

또한 관성유 튜브 길이의 아레라 마감재에는 유압식 식모원과 협력해 자연을 닮았다. 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조형의 서양을 담았다.



근로와 인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 매체예술...

현대 사회의 키워드는 소통이다.

정교 명쾌한 모습으로 소통해야 하는 사회에서

정정 사랑과 유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와의 직접 소통이 필요하다.

매체예술은 사랑과 근로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정에서 그 의미가 커지고 있을 수 있다.

초기의 소통은 간단한 전광판 임태로 낱거나 보스 등의 정보 제공의 임태였지만, 요즘 이는 낱기에

반응하거나 근로 자세를 임태 변화 가능한 예술로 이용 하는 등 그 지반이 넓어지고 있다.

매체예술과 근로와의 만남...

단순 정보 제공 임태에서 벗어난 근로의 매체예술은 기존 근로의 안개를 뛰어넘는 기술이

있어 사회의 발전에 실감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